

추석연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집중 감시·단속

광주시·전남도 공동, 24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악성폐수 배출·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감시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활용품 사용이 늘어난 점과 대면감사·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으로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추석연휴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 폐기물 관리대책은 추석 연휴 전후 기

간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임시적화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도 대비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도 강화한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8)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비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연휴기간 귀성·귀경객들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

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용객들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해,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오는 26일까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해 실시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전남도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지역내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연휴 전인 18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 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찾아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인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도 대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퍼도 돼! 제대로만 버려!!!”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광주지역 청년들이 담배꽂초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달가량 담배꽂초를 모아 조형물을 만들고 “퍼도 돼! 제대로만 버려!!!”라는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동구,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수리 서비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협약, 240여 대 점검

광주시 동구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점검·수리를 진행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함께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실시했다.

동구는 지난 2008년 한국폴리텍대학과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총 240여 대의 장애인 차량을 점검했다.

올해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진행

된 무상점검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차량 11대에 대해 엔진오일·와이퍼·윈도 브러시 점검과 부동액 및 에어컨 필터 교체 등 정비비를 마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애인들에게 승용차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생명과 직결된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수리 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덕남동에 '가족 힐링촌' 들어선다

내년 말까지 사업비 10억원 투입 자연생태체험장·캠핑장 등 조성

광주시 남구 덕남동에 자연생태 체험장과 캠핑장을 갖춘 대규모 가족 힐링촌이 들어선다.

남구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에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덕남동 일원에 2000평 규모의 가족 힐링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취임 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매진해 지난 2019년 대골제 수변공간을 시작으로 분천상 더 푸른 누리길, 향동제 건강누리길 조성까지 환경 분야에서 굿

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4번째 결실인 덕남마을 가족힐링촌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사람과 환경, 테마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가족 힐링촌 출입구에는 샤워장과 취사장, 화장실을 비롯해 야외쉼터가 조성되며 부대시설 인근에는 주차공간과 캠핑장 데크를 갖춘 제1캠핑구역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나무 숲길을 따라 주차공간과 야영장, 산책로가 조성된 제2캠핑구역이 들어서며 제2캠핑구역 뒤편에는 수목원과 자연생태 체험장, 야외쉼터 등 생태체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

합을 구성할 방침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가족 힐링촌 내 재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량 소음은 물론이고 인적조차 드물어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장소"라며 "이곳에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족 휴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 오는 2022년까지 덕남마을에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마을 진입로 확장 등 새 들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국 종합평가 1위

전남대 주관·운영...환경부 지원 사업 통해 환경문제 해결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가 환경부 주관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남대가 주관·운영하는 광주센터가 환경부의 2020년 까지 4년 동안에 대한 정기평가에서 전국 15개 센터 가운데 1위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성과, 향후 운영계획 등 센터운영 전 부문에 걸쳐서 진행됐다.

광주센터는 지역 내 산·학·연·민·관의 환경기술 연구역량을 결집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환경부 지정기관이다.

전남대가 운영을 주관하고 환경부와 광주시 등이 매년 예산을 지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지난 2016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고, 지난 2020년 정기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박정훈 광주센터장은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확대 및 환경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